

“역동적인 한국 주빈국 프로그램,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현지 언론의 스포츠라이트 받을 것”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장 위르겐 보스 씨가 주빈국 행사 준비 현황 점검차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4월 1일 조직위원장 취임 이래 공식일정으로 갖는 첫 한국방문이었다.

율리우스 슈프링어 출판사 국제마케팅 책임자로 일했던 보스 씨는 도서마케팅의 실력자로 정평이 난 인물.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장 위르겐 보스 씨를 만나 주빈국 한국에 대한 기대와 평가, 주빈국 참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국제도서전, 참가출판사 훌륭히 충족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

“서울국제도서전 전시장을 둘러 두 시간 정도 둘러보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비해 작은 규모였지만, 어린이도서 부스가 많았던 것과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했던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대행사 가운데 참가가 활발했던 국제저작권 포럼도 좋았습니다.”

최근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보스 씨의 평가다. 보스 씨는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한 독일 출판사들의 부스도 훌륭했다”며 재치 있는 한 마디를 잊지 않았다.

머칠을 꼬박 바쳐도 전체 전시관 관람을 소화할 수 없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비한다면 서울국제도서전은 분명 작은 규모. 보스 씨는 “도서뿐만 아닌 문화 전반의 축제가 펼쳐지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을 살펴보지 않고서 무작정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며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대한 자부심을 전했다. “도서전의 규모가 좋은 도서전

의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는 기자의 질문에 보스 씨는 “물론”이라며 흔쾌히 동의했다.

“크고 작은 규모만으로 도서전을 평가해서는 안 되지요. 많은 해외출판사들이 참가하는 국제도서전에선 그들의 요구를 훌륭히 충족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큰 규모는 오랜 전통이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 프로그램 인상적...현지에서 큰 반향 부를 것

주빈국 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에서 가진 ‘한국문학순회 프로그램’과 ‘한국 영화 순회상영전’을 필두로 다채로운 주빈국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독일 언론들은 독일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취재, 한국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해 두고 있다. 보스 씨는 주빈국 프로그램 현황발표 기자회견장에서 들은 한국 주빈국 프로그램을 말하며 “액티브한 프로그램이다..”,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성황리에 주빈국 행사를 마

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기 프로젝트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는 한국 조직위원회의 노력은 인상적입니다. 한국작가 소개, 저작권 거래 등의 비즈니스도 중요하지 만 무엇보다 한국이란 나라를 세계에 홍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문화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인 만큼 한국문화와 출판문화를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임 전 시작된 행사들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쉬운데, 오는 9월 베를린과 에어푸르트에서 열리는 한국문학낭독회에는 꼭 참석할 것입니다.”

도서전 주빈국 참여 이후 사후관리가 더 중요

주빈국 한국에 대한 보스 씨의 학습은 인상적이다. 한국작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전문가들에게 한국작가와 작품을 부지런히 추천 받고 있다는 보스 씨는 최근 황석영, 고은, 최윤 씨의 작품을 인상 깊게 읽었다고 말했다. 한편 보스 씨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참가는 번역된 책이 없으니 해외시장에서 외면받고, 해외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니 번역을 게을리하는 악순환을 깰 절호의 기회”라는 의미 있는 말을 던졌다. 도서전 참가도 신경써야 하지만, 도서전 이후 작가들의 지속적인 국제행사 참여, 관계를 맺은 해외 출판사들과의 유대 등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한국을 빠른 시간 내 경제적 성공을 거둔 나라, 그리고 추구의 나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독일과의 4강 경기도 한몫 했지만, 그 이전 차범근과 차두리라는 부자선수의 활약은 깊은 인상을 남겼지요. 인터넷과 영상매체 발달로 한국 출판시장 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보문고에서 핫트랙

스란 큰 음반매장을 보았는데, 독일도 서점에서 책 이외의 것들을 취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 주빈국 행사에 힘 실어줘야

보스 씨와 한국과의 인연은 이번 도서전이 처음이 아니다. 보스 씨의 숙모는 다름 아닌 한국사람. 보스 씨의 숙모는 그를 만나는 틈틈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문화는 어떠한지를 알려주었다. 보스 씨는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 숙모가 들려준 ‘한의 민족’이란 개념이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문화 전반을 엿볼 수 있는 주빈국 프로그램만 보아도 새로움과 역동성이 넘쳐나는데 한의 민족이란 비유는 쉽게 떠올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주빈국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언론의 비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열린 문학낭독회에 참석한 관객수가 적었다는, 독일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비판은 문화적 차이에서 생긴 오해입니다. 작품낭독회에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것은 훌륭한 성과입니다. 독일언론들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독일을 찾는 도서전 시기를 위해 자신들의 정보를 아껴두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걸어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확실히건데 지금의 이 행사들은 오는 10월 도서전 현장에서 세계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프로그램 윤곽 드러나

한국출판역사 입체적 전시, 한국의 책 100, 작가의 벽, 한국문학 번역작품 전시, 판소리 <심청가> 완창, 뮤지컬 <지하철 1호선> 공연...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6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주빈국 프로그램 현황발표 기자회견에서 주빈국 조직위원회측은 문학, 공연, 전시, 스포셜 분류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과 선정과정을 발표했다.

황지우 총감독은 “독일 현지의 예술행정가, 예술경영자 등과 함께 전 과정을 협의하여 주빈국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이러한 대화적 제작방식은 독일 현지에서 문화예술이 소비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이용하여 우리 문화예술을 ‘스미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문화 예술인들이 현지 예술기관 및 예술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문화예술경영의 인프라 스펙트럼 구축을 목표로 한 또 다른 비즈니스라는 설명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박맹호 회장은 300여 평에 마련될 한국관을 설명하며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해외도서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

을 갖는 비즈니스의 큰 장”, “기능성, 편리성, 예술성을 조화시켜 한국의 책이 해외에 소개되고 출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우창 조직위원장은 “주빈국 제도는 주빈국의 출판, 문학, 영화, 연극 등 문화 전반을 선보이는 장으로 독일 및 유럽 전역에 한국 취향 애호가를 심고 전파하는 기회가 될 것”,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고급문화 마케팅의 기폭제이자 문화예술의 장기적 포지셔닝의 시발점인 만큼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겠다”며 주빈국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한편 위르겐 보스 조직위원장은 북한의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불참 통보를 전했다. 북한은 참가를 거부했지만, 독일 취재기자를 중심으로 1950년대 이후 북한 선전, 선동 관련 사진 전시회 및 다양한 북한 관련행사를 독일측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스 씨는 밝혔다. **▶**

취재 박용두 기자